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1-25)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2-3)

아브라함의 경건한 행동은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2-3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이런 뜻이 된다. 인간의 공적(행위)이 장부에 빠짐없이 기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4-5절).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건성에 의지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빈손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의 교제 안으로 영접하시는(즉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적 순차에서 언급한다. 믿음의 인정(창15:6)은 <창세기>에서 할례에 관한 보도(창17:10-27)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계약)을 근거 짓는 것이 아니라 확증한다 (9-11 상반절). 이방인이 믿을 때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예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으로 간주된다(11 하반절, 12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을 소유물(유산)로 차지할 것이라(13절)는 사실은 창22:17-18 (12:2-3; 18:18 참조)의 약속에 연관되어 있다. 유대교적 해석과 일치하여 바울은 그 약속을 단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지배에 참여하리라는 약속으로 이해한다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동시에 '세상'을 뜻하기도 한다). 이 약속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성취한 데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건 없는 신뢰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신 그 친교 관계에 근거한다 (믿음의 의). 율법 성취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믿음은 결정적인 전제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14절). 그것은 창15:6에 모순될 것이다. 그것은 더욱이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나님의 진노)으로 이끌어 간다는 바울의 확신에도 또한 모순될 것이다.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율법을 통하여 범법이 촉발되며 그리함으로써 인간이 죄인으로 폭로된다. 이러한 사실은 16절에 제시된 기본적인 귀결로 이끌어 간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의에 인도할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또한 담겨 있다. 믿음 그 자체는 부족한 행위에 대한 배상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선사를 신뢰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아무런 전제 조건에도 얽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5 절)는 사실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다. 18-21 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지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하여 성격 지어진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망 없는 처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9 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내맡겼던 것이다.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며(17절),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셨다(24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25절). 이로써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구원의 두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 자리에 서게 된다. 로마서 4장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증언한다.